



協會發展의 한 해로

— 第7回 定期 開會辭 —

오늘 尊敬하는 會員 여러분께서 公私間 多忙하심에도 不拘하시고 더욱 날씨도 고루지 못함에도 이처럼 多數 參席하셔서 衷心으로 感謝드리며 一年만에 다시 한 자리에서 뵈옵게 되오니 實로 感慨無量함을 禁할 수 없습니다.

어느덧 多事多難했던 巳未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必要는 없습니다마는 今年에는 우리나라가 國內外的으로 여러가지 試練과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해로서 公職에 계시는 會員께서는 勿論 企業經營을 하시고 있으신 會員계서도 經營上 여러가지 隘路가 많으신 中에서도 協會의 活動을 위하여 物心兩面으로 積極的인 協助를 하여 주셔서 協會를 원만히 運營해 올 수 있었으며 이제 今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總會를 열어 지난 해의 協會事業에 대한 檢討와 함께 來年의 協會活動에 대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討議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一年間의 協會活動을 간략히 報告드리면 第三回 水道심포지엄을 會員 여러분과 全國의 水道關係者 百五十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釜山에서 開催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盛況裡에 모임을 갖고 우리나라의 水道發展을 위하여 모두가 努力을 다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十一月十九日부터 自由中國 台北市에서 열린 第二回 東亞細亞水道會議에 國內의 어려운 條件을 무릅쓰고 十二名의 代表가 參席하여 參加國 相互間의 友好增進과 韓國 水道界의 聲譽를 높이고 歸國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水道界의 懸案問題이었던 上水道施設基準 發刊을 위하여 지난 七十八年에 發刊準備에 着手한 以來 一年半余의 準備期間을 거쳐 이제 建設部의 監修를 받아 곧 發刊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上水道施設基準의 發刊事業이야말로 韓國上水道協會의 存立과 直結되는 문제라고 보아 모든 努力과 精誠을 다하여 이 事業을 推進하여 이제 所期의 成果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上水道 施設基準의 發刊準備 過程中 代表執筆을 하여주신 本會 理事이며 漢陽大學校 教授이신 金元滿 教授의 勞苦에 대하여 다시 한번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協會誌 水道의 發刊입니다. 協會誌 水道는 一九七四年 七月 創刊된 以後 꾸준히 刊行하여 왔으나 七七年 以後에는 한번의 欠호가 없이 會誌를 發行하여 今年 十二月號로서 誌齡 二十號를 記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協會誌 水道는 韓國 水道界를 代表하는 얼굴로서 名實相符한 權威를 가지고 있는 專門誌로

서의 位置를 갖게 되었으며 外國團體와의 會誌 交換 等 광목할 만한 發展을 이룩 하였습니다.

以上 몇가지 문제를 들어 지난 一年間의 協會 運營經過를 말씀드렸습니다 마 는 協會의 性格上 制限된 活動畵에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는 이제까 지 쌓은 基盤을 土台로 앞으로의 八十年代는 全體 會員께서 協會가 크게 發展할 수 있도록 뒤를 밀어주실 莫重한 責任을 지니고 계시다는 點을 銘心하시고 倍前 의 關心과 熱意를 協助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一九七八年度 決算과 또한 一九八十年度的 事業計劃과 收支 予算案 等 附議案件이 많이 上程되어 있습니다 마는 넉넉치 못하게 짜여져 있는 予算을 아껴서 執行한 것이오니 너그러이 通過시켜 주시기 바라며 來年度의 事業 計劃과 予算에 대하여는 자세히 살펴 보시고 좀더 有益한 事業을 펼 수 있는 方向으로 指導하여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아모쪼록 오늘 모이신 이 자리가 和氣靄靄한 가운데 家族의 分團氣속에서 進 行되기를 바라면서 協會 發展을 위한 高見이 있으시면 忌彈없이 開陳하여 주시 기를 付託드리면서 끝으로 大望에 찬 새해 庚申年을 맞이함에 있어서 會員 여러 분의 健勝과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真心으로 祀願하면서 이 만 開會辭에 가름합니다. 感謝합니다.

一九七九年 十二月 八日

社団法人 韓國水道協會
會長 鄭 義 錫